



인천 119 스토리

2021년
11월호



인천소방본부



목차 CONTENTS

01

인천소방이야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 않았던 도전

02

인천소방이야기

도전은 나를 빛나게 한다

03

인천소방이야기

도로변의 빨간선을 아시나요?

04

인천소방 소식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59회 인천시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2년 연속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05

생활 속 소방

난방기구 화재 발생 현황 및 안전 수칙 인포그래픽

06

시민의 편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 않았던 도전

글 서부소방서 검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상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집안에서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소방관이 되기까지의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방관 = 아버지

제 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화재진압 등 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제복을 입은 아버지를 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맥가이버였고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는 단순히 아버지께서 입으신 제복이 멋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을 지나며 소방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부터 진지하게 소방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첫걸음

꿈은 소방관으로 정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을 무렵, 아버지께서는 ‘앞으로는 대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소방관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형 면허부터 취득해 운전병으로 입대하고, 2년 동안 운전 경험을 쌓아서 나오나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롱 면허인데다 집에는 몰 수 있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승합차를 겨우 빌려, 아버지께 운전을 배웠습니다. 호된 꾸지람을 받으며 운전을 배운 덕분에 비교적 빠른, 만 20세의 나이로 첫 시도 만에 대형 면허를 취득했고, 운전병 보직으로 공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호랑이 교관님의 엄격한 운전 교육으로 자대 내 수송관에게 금방 운전 실력을 인정받고 이등병 때부터 대형 트럭을 운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량진, 그 삭막했던 곳

2년 여 간의 군 복무와 대학교 한 학기를 더 다닌 뒤 본격적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휴학하고 노량진을 찾았습니다.

군대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던 저에게 노량진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구들과도 잠시 연락을 끊고 매일 새벽 학원에 가고, 밤늦게 귀가하는 등 독하게 공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년 동안 공부했으나 끝내 합격하지 못했고, 소방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채 복학을 해야 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마이너리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인천공항 소방대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때마침 채용하던 시기였고, 비록 소방 공무원 시험은 포기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마음으로 공항소방대에 입사하고 나름대로 운전실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언제 출동이 걸릴지 모른다는 긴장감,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등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명감 부족. 사명감이 없는 채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나태해지기 시작할 즈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아내에게 프러포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소방관이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소방관이 될 테니까, 나를 믿고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고맙게도 제 아내는 ‘나는 오빠 하나만 믿고 가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나도 열심히 도울게.’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재도전, 불가항력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날 믿고 의지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다시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공채 채용인원이 많은 경기도 시험을 접수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근무가 끝나면 무조건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첫 시험을 한 달쯤 남겼을 때, 업무와 학업의 병행으로 인한 과로인지, 출근을 준비하다 기운이 없어 바닥에 넘어졌고,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김스하고 회사와 독서실을 병행하며 공부를 한 결과,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체력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을 합격해봤기에 자신감이 생겼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를 기약했습니다.

그다음 시험에서는 필기와 체력까지 합격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 판정받고,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가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최종결과에서 결국 또 불합격 통보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또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불합격하는 경기도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네 번째 소방 공무원 시험은 고향인 인천에서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도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역시 또 몸이 문제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필기시험이 끝난 뒤 병원을 찾았으나, 체력시험 10일을 앞두고 허리디스크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의 내조

그동안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해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으나, 고맙게도 아내는 후회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준비해보고, 이번에도 안되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간 필기보다는 체력에서 많이 불합격했기에 체력

시험 대비를 더 철저히 했고, 간 수치 이상 판정이 나왔었기에 술도 끊었습니다. 100kg가 넘었던 체중을 체력시험 때까지 20kg가량 감량도 했습니다. 아내도 제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 식사는 아들과 친정에서 해결했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해주었습니다.

운전 특채

그동안 공채 시험만 봤는데, 그 해 인천에서 운전 특채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즉시 지원했습니다.

시험과목도 적고 공채보단 비교적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가 났을 때, 운전 특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었고, 체력시험까지만 합격한다면 이 길었던 수험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체력시험 당일, 아내의 내조 덕분에 저는 체력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와 체력 합격자도 채용 인원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신체검사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최종 결과에서 불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인생 제2막

면접까지 잘 마치고 최종 합격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채용 예정 합격 인원이 미달이니 합격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정보다 일찍 최종합격자 발표가 났고, 합격 문자까지 받고 나니 지난 11년간의 노력과 뼈 아픈 좌절, 실패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몽롱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속을 너무 늦게 지켜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제일 고생했어.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가족 그리고 소방관 DNA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도전할 목표를 주셨고, 아내는 곁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며, 아들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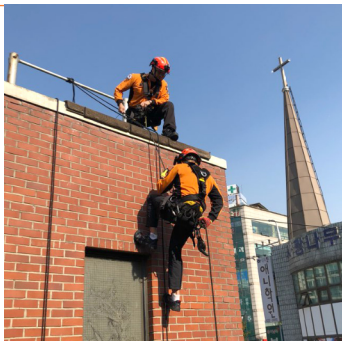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소방관이 된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만큼 하루하루 그리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은 나를 빛나게 한다!

글 미추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노정현



“ 그 도전이 무엇이 되었든 그 자체로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가치가 될 것이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27분. 교대 점검 후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 출동을 알리는 벨 소리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차량에 탑승 후 장비를 착용하였다. 무전 내용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화재임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향하였다.

검게 그을린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하였다. 내부는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고, 요구조자가 있다는 무전을 듣고 내 심장은 더욱더 요동쳤다. 얼마 후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요구조자 2명을 발견했고, 동료들과 구급대원에게 인계 후 거친 숨을 가다듬고 어둠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것이 나의 첫 화재 출동이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구조대원은 아니었다. 2012년 12월 3일 구급대원으로 임용되어 그간 구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얼굴에 내 모습을 그려 넣어 보았다.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짐했다. ‘구조대원! 도전해 보자’

7전 8기 구조대원 도전기는 2018년 뜨거운 여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먼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에 도전하였다. 보통은 소방학교에서 5주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시험을 치르는데, 교육 과정

이 축소되어 교육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동영상으로 이미지트레이닝 후 미추홀구조대에서 실전 연습을 시작했다. 운 좋게 첫 시험에 합격하여 구조대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그 당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미추홀구조대 선배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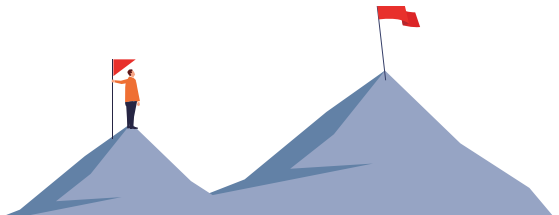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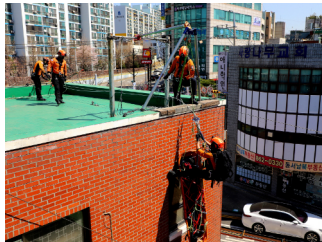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 인사이동이 있을 무렵, 기대하던 구조대 생활이 시작될 줄로만 알았지만 그건 나의 바람으로만 끝나버렸다. 구급대원은 인력이 부족했고, 반대로 구조대는 인력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14일. 드디어 인사발령 사항에 내 이름을 확인하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구조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름 모를 장비와 생소한 업무로 첫 한 달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좋은 선 후배들이 함께 있어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동료들이 있기에 걱정이 없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인명구조사 1급’에도 도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가 되고 싶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구급차 타기 싫어서 구조대로 도망갔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경험은 항상 나에게 설렘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 도전이 무엇이 되었든 그 자체로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도로변의 빨간 선을 아시나요?

글 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석진

인도를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도로변의 빨간 선(소방 시설 주정차 금지)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빨간 선의 의미를 모르고, 심지어 안다고 한들 그 중요성을 모른 채 불법 주정차를 서슴없이 한다.


빨간 선은 2019년 4월에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5m 이내인 곳에 신축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재를 진압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표시이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에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 빨간 선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의 진입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골든 타임을 놓쳐 재산 피해와 더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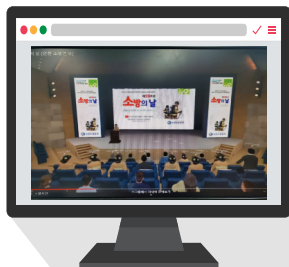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 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의 신고 항목에서 소화전을 클릭,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먼저 나서서 실천하는 성숙한 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등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59회 인천시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11월 9일 제59회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에서 가상의 기념식장을 만들고 아바타들이 진행하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인천소방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 의장 등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했다. 사회는 소방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주연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진행됐다. 먼저, 인천소방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보여주며 신 · 구세대의 소방대원들에게 영웅상이 수여됐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천소방의 곳곳을 보여주는 영상과 '말하는 대로' 합창 영상 등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가 제공됐다. 이어서 온라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열어 캠핑용 소화기, 영웅이 USB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기념 영상은 인천소방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년 연속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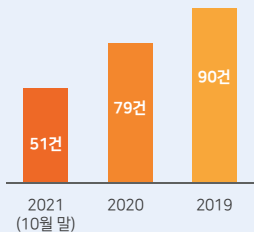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소방청이 주관하는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방 사범 단속 및 수사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10개 시·도를 선정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해당 제도정착을 위한 실시 사례를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사사례 연구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대처로 시민 안전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난방기구 화재 발생 현황 및 안전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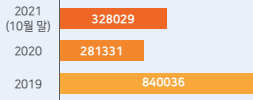
* 3년간 연도별 난방기구 화재 발생현황

화재건수



재산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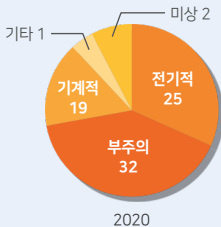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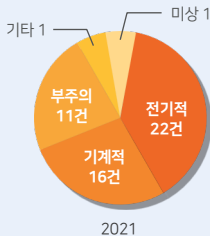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인명피해



* 3년간 난방기구 원인별 화재 발생현황



* 난방기구 화재예방 안전수칙

1. 사용 전 먼지 제거하기
2. 플러그, 전선 등 피복 손상여부 확인하기
3.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지 않기
4. 자리를 비울 때에는 난방기구 전원 끄기
5. 화목보일러 불연재로 구획된 공간에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시 민 의 편 지

강화 소방대원분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강유진

소방관: 강화소방서 불은119안전센터 소방장 고철수, 소방교 유재원,
소방교 조반석



안녕하세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10월 16일 밤에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해서 119 구조대 분들과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라,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를 탔습니다. 병원에도 일찍 도착해 주셔서 치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건강하게 잘 회복했습니다. 강화소방서 불은119안전센터 고철수 소방장님, 유재원 소방교님, 조반석 소방교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119 구급 증명서가 필요해서 불은면 119소방서 방문했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길치라서 민원실 가는 길을 지나가시던 직원분께 여쭙았는데, 같이 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양소방서 구급대원님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고은정

소방관: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원세, 소방교 윤완석, 소방사 최민섭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이원세 소방위님, 윤완석 소방교님, 최민섭 소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신랑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호소로 처음 119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지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구급대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상태도 물어주시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구급차 타기 전에 아이는 집으로 혼자 보냈는데, 아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는 저희 아이까지 행겨주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응급실 호출이 늦어지자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다독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 했나 봐요. 응급실에서 선생님 나오셔서 환자 정보 쓰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구급대원님들께서 가시는 게 보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비록 직접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생해주신 덕분에 치료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어요. 구급대원님들의 빠른 대응과 세심함 덕분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1년 11월 23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정상기, 양경철, 김선태, 유지연, 박형서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070-7092-0999 <https://www.s-creative.co.kr>